

3월 말만 되면 야구 보는 마음이 슬쩍 예열돼요. 그런데 2026년 MLB 정규시즌은 3월 25일(수)에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즌 시동을 거는 걸 MLB가 공식 발표했죠. 이런 날은 “오늘 경기 맞나?” 같은 사소한 확인을 놓치면, 라이브 보는 타이밍이 어긋나서 은근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개막 전 미리 챙길 것들만 정리해볼게요. 검색어도 보통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 사이트”로 가는 편이라, 국내 쪽 일정이랑 같이 묶어서 보는 사람 기준으로 말할게요.

개막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시작 “날짜”와 “시간”부터

MLB 스케줄은 기본적으로 ET(미국 동부시간) 표기가 많아요. 한국(KST)은 보통 13시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ET 기준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쯤이겠지”라고 대충 감으로 보다가, 실제 방송 시작이 애매하게 어긋나는 경우죠.



저는 시즌 초반에 이런 류의 사고를 두 번 겪었어요. 한 번은 “오후”라고 적힌 시간을 보고 출근 준비하다가 뒤늦게 켜고, 또 한 번은 반대로 한국 시간 환산을 잘못해서 너무 일찍 틀어놓고 스스로 기대감만 날려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해요. 개막 당일만큼은 “날짜 + 시작시간 + 내 시간대로의 환산”을 공식 일정 기준으로 딱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MLB는 정규시즌 162경기 체제예요. “경기가 많다”는 말은 들리지만, 체감은 스케줄이 계속 굴러가면서 시작 시간대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데서 와요. 특히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특정 팀 경기가 새벽, 특정 팀 경기가 저녁으로 갈리는 패턴이 생기는데, 이때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KBO 개막 날짜도 같이 체크

국내에서 MLB만 보다가도, 막상 검색하다 보면 KBO 일정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중계” 검색하는 분들이 보통 KBO와 MLB 일정, 시작 시간, 순위, 실시간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흐름이 실제로 있거든요.

KBO는 2026 정규시즌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편성돼 있고, 개막은 2026년 3월 28일(토)로 안내돼 있어요. 개막전은 상위 5개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MLB 개막(3월 25일) 직후 3일 뒤에 KBO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이 타이밍에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르는 사람은 특히 일정 충돌을 겪기 쉬워요. 예를 들면 같은 날, MLB는 새벽 쪽이고 KBO는 저녁 쪽이면 상관이 덜한데, 반대로 둘 다 한국 기준 애매한 시간대에 걸리면, 어느 쪽부터 틀지 결정이

필요해집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개막 직전에는 MLB만 보지 말고, 최소한 KBO 개막 날짜(3월 28일)도 머릿속에 넣어두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시즌 구조를 알면, “순위표”를 볼 때 덜 흔들린다

MLB와 KBO는 시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이고, 2026 순위 페이지에서는 포스트시즌 진입 방식이 안내돼 있어요.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두면, 초반 순위가 “그냥 순위”로 보이지 않고 “어떤 단계로 연결되는지”가 같이 보이기 시작해요.



KBO도 단일리그제 형태로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구조로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순위” 화면을 봐도 MLB는 디비전시리즈 직행 같은 단서가 있고, KBO는 그 단서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결국 시즌 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 똑같은 순위표겠지” 하고 감각만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초반부터 구조 차이를 알고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예를 들어 MLB는 지구 우승팀의 성격이 포스트시즌과 연결되니, 순위 페이지를 볼 때도 그 관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 고르기 전에, 검증 기준은 딱 세 가지만 잡자

개막 전에는 경기당 중계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날짜별로 화면 구성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감상평이나 후기보다 먼저 “검증 가능한 기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식 일정과 연결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MLB는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과 함께 “Where to watch” 같은 중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이 있고, KBO도 일정 페이지에서 TV/RADIO, 장소 같은 항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볼 때도, 이 공식 일정에 적합한 시작 시간과 실제 중계 시작이 엇갈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짧게, 딱 필요한 것만 체크리스트로 정리할게요.

1. 공식 일정에 적합한 경기 시작 시간이랑, 내가 보고 있는 중계 시작 시간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
2. 같은 팀이라도 경기 날짜가 바뀌면 채널이나 표기가 바뀌는지 미리 확인
3.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동이 있을 때, 중계가 그대로 고정으로 따라가는지 확인
4. 시간 표기가 ET 기준인지, 한국 환산이 이미 반영됐는지 분명한지 확인

[야구중계사이트](#)

5. 경기마다 결과, 업데이트 흐름이 매끈한지 확인(중계 시작 후 지연되면 답답해짐)

이 다섯 개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틀렸을 때 바로 티 나는 포인트라서요. 특히 3월 말은 추위나 변동 이슈가 생기기 쉬운 편이라,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있으면 검증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 환산,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반은 이긴다

한국에서 MLB 중계를 보면 ET 시간을 KST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통”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이나 일시적인 표기 방식 차이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시즌 초반 며칠은 꼭 공식 일정과 내 화면 표기를 같이 대조해봅니다. 딱 2~3번만 해도, 그 사이트가 ET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개막 초반에는 “한 경기만”이 아니라 연속으로 경기들이 이어지니까, 시간 환산을 잘못하면 연쇄로 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경기 시작을 1시간 늦게 켜다면, 그날 밤에 다음 경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흔들릴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날은 특히 엄격하게 보자는 쪽이 좋아요.

시간 환산을 머리로만 하면 실수 확률이 올라가서, 저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굴립니다. 공식 일정에서 “ET 시작시간”을 확인하고, 내 생활 패턴(출근 전인지, 퇴근 후인지, 잠들기 전인지)에 맞춰 “몇 시에 알람을 볼지”를 정해두는 편이에요.

짧은 정리로도 한 번 적어둘게요.

1. MLB 일정 표기(ET인지)부터 확인하기
2. ET 기준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기(시차는 보통 13시간)
3. 첫 경기 1번은 실제 중계 시작 시점과 대조하기
4. 그 사이트 표기가 한국 환산인지, ET 그대로인지 기억하기

개막전 날, 실전처럼 준비하는 방법

개막 당일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경기 뭐야?”죠. 근데 저는 “오늘 경기”보다 먼저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대”부터 확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요.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라서, 매일 다른 팀과 다른 시작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팀만 보려다가, 현실 스케줄 때문에 계속 놓치는 날이 나와요.

그래서 개막 전, 최소한 이번 주에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하나 잡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깰 수 있으면 오전 경기 위주로, 저녁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저녁 경기 위주로. 그러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여러 개 바꿔가며 찾는 시간이 줄고, 결국 경기 집중력이 올라가요. 야구는 보는 동안 집중이 깎이면 재미가 줄거든요.

그리고 MLB는 포스트시즌 구조가 지구 우승팀 상위 2팀 직행, 나머지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걸 시즌 초반부터 알고 있으면, 단순히 “누가 지는지”보다 “어떤 팀이 어떤 위치를 잡는지”에 관심이 가요. 그러면 중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초반의 짧은 스윙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구 우승팀 흐름을 더 의식하게 되죠.

mlb중계를 볼 때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들

여기부터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지점들만 말할게요. 사실 큰 사고는 별로 없는데,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서 “왜 오늘은 답답하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경기 시간이 “내가 기억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일정 페이지에 표시된 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즌 초에는 일정 업데이트가 이어질 수 있어서, 어제 저장해둔 시간이 오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표기가 갱신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개막 직전에는 공식 일정 페이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좋아요.

둘째, “어느 플랫폼에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계가 실제 경기 시작 타이밍을 따라가느냐입니다. 어떤 화면은 경기 시작 전에 분석이나 리캡이 붙어서 더 빨리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화면은 반대로 경기 시작하고 나서야 본편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막 첫 경기 때 “중계 시작이 경기 시작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지”를 감으로라도 잡아두면 이후가 편해집니다.

셋째, KBO와 MLB를 동시에 보려는 사람은 알림 운영을 꼭 다르게 가져가야 해요. KBO는 단일리그제이고 팀당 144경기 체제예요. MLB는 162경기고 포스트시즌 구조도 다르고요. 결국 경기의 의미와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알림까지 똑같이 설정하면, 어떤 날은 내가 보고 싶은 리듬을 못 찾게 됩니다. 저는 알림을 “팀 기반”으로 걸어두기보다 “내 생활 가능한 시간대 기반”으로 걸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야 선택이 덜 흔들려요.

“야구중계” 검색할 때, 뭘 먼저 눌러야 덜 헤매나

요즘은 검색부터 바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검색 결과로 바로 들어가면, 그게 공식 일정 페이지인지, 단순 집계 사이트인지 바로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순서가 가장 덜 헤맬다고 느낍니다.

MLB 개막(3월 25일) 관련해서는 먼저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작 시간 표기(ET)”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한국 시간 환산을 머릿속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중계사이트”나 중계 화면을 보면, 그 화면이 공식 일정과 얼마나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식이에요. KBO도 마찬가지로, KBO 개막(3월 28일) 전후로 일정 페이지에서 TV/RADIO, 장소 같은 항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두면 국내 경기로 넘어갈 때 덜 헛갈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경기 없나?” 같은 공황이 줄어요. 야구는 결국 경기로 말하니까, 일정만 정확히 잡아두면 중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막 전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한 가지

이상하게 야구는 시즌 초반에 기대감이 커서, 작은 실수에도 기분이 확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계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 시간대 표기, 채널 표기, 연기 같은 변수까지 다 합치면 “완벽하게 외우기”보다 “확인하는 루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이거예요. 개막 전에는 MLB 일정(3월 25일 시작)과 한국 시간 환산을 딱 한 번 정리하고, KBO 개막(3월 28일)도 같이 캘린더에 박아두세요.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땐 공식 일정과 중계 시작 시점이 어긋나지 않는지, 변동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시즌 초반 며칠 동안은 거의 안 꼬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야구가 시작되는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2026년 MLB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로 문을 엽니다. 그 첫 경기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리듬을 타게 됩니다.